

문순태 소설인생 60년...“소설은 삶이자 생명이다”

후산 정재석 서예전 4월1~25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문순태 중·단편 선집’ 7권 발간
조은숙 박사 3년 걸쳐 선정 작업
발표 연대 기준, 주제별 재구성
작가의 말 평론가 해설 나눠 실어



“소설은 내 스승이었고 종교였으며 생명이었다. 소설을 쓸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한 실존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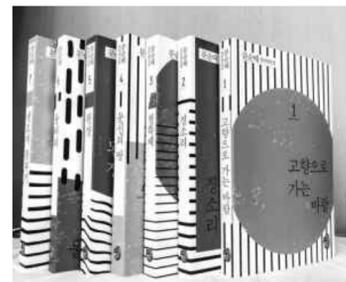
‘정소리’, ‘철쭉제’, ‘문신의 땅’ 등 6·25와 분단으로 인한 근현대사의 아픔,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과 한의 정서를 주제로 소설 창작을 해온 문순태 작가(사진위). 그는 평생 소설을 쓰며 소설과 동고동락을 해왔던 남도가 낳은 대표 소설가다. 그에게 소설은 ‘삶 자체이자 생명이며 종교’였다.

이번에 문순태의 소설인생 60년을 갈무리한 ‘문순태 중·단편 선집’ (소명출판)이 발간됐다.

전남대 강사인 조은숙 박사가 엮은 이번 선집은 7권으로 구성돼 있다. ‘고향으로 가는 바람’, ‘정소리’, ‘철쭉제’, ‘문신의 땅’, ‘된장’, ‘울타리’, ‘생오지 뜰부기’ 등 모두 7권이다.

조 박사는 “문순태 작가에게 소설은 삶 자체였다. 평생 그와 동고동락을 해온 소설이 있었기에 삶의 고비마다 찾아온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가 소설에게 위로받았듯이 그의 소설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문순태의 소설가로서의 출발은 지난 1974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백제의 미소’가 당선되면서였다. 창작과 신문기자 생활을 하던 그에게 80년 5월은 잊을 수 없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된다. 당시 광주 5월항쟁이 끝나고 광주일보 전신 전남매일신문에 김준태 시인의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게재한 이유로 해직을 당한다. 이후 잠시 언론계에 몸을 담았다가 퇴직을 하고, 광주대 문학과 교수로 부임한다. 교수로 재직시절 수많은 제자들을 작가와 시인으로 배출했으며, 그 역시 다양한 작품을 창작한다.



지금까지 문 작가는 장편 23편(38권), 중·단편 147편, 중단편집고 연작소설집 17권, 기행문 3권, 시집 2권, 산문집 6권, 동화집 2권, 어린이위인전 2권, 평전 1권, 소설창작이론서 4권, 희곡 2편 등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겼다.

조 박사는 애초에 중단편 선집을 엮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147편에 이르는 분량 탓에 작가와 상의해 7권 분량의 선집을 내기로 한 것. 147편에서 다시 100편을 고르고 다시 75편으로 줄인 뒤 최종적으로 65편을 선정했다. 그렇게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번 작업은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선집의 편집체제는 이전에 발표했던 중단편집고 연작소설집 17권에 실린 순서를 따르지 않고 가능한 작가가 발표한 연대를 기준으로 삼았다. 각 권의 분량을 고려해 주제별로 재구성했으며 가족성을 위해 초기 소설에 한자가 많이 쓰인 점을 감안해 한자를 생략하거나 변경했다. 또한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이나 문단은 작가와 상의해 삭제하

나 단어와 문장도 많은 부분 수정했다.

이에 앞서 조 박사는 지난 2016년 ‘생오지 작가, 문순태에게 가는 길’ (연락)을 펴낸 바 있다. “작가문을 썼던 인연으로 이번 중단편 선집 작업도 순탄하게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대한 작품을 썼던 작가 문순태의 삶을 돌아보며 창작의 연원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폈다. 그 결과 6·25전쟁과 광주 5·18,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 작품 기저에 깔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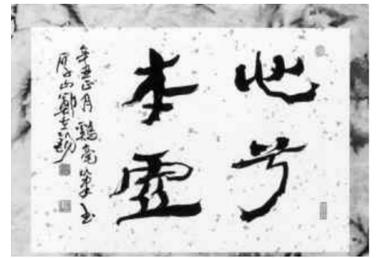
1939년 담양군 남면 구산리에서 태어난 문 작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6·25 전쟁을 겪는다. 당시 고향 사람들이 좌우익으로 갈려 서로 죽이는 광경을 목격한 장면은 이후 소설가로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순태는 1965년 김현승으로부터 ‘현대문학’에 시 ‘천재들’이 추천되고 1966년 전남매일신문사 기자로 입사한다.

이렇듯 그의 작가로서의 삶은 시대적 상황과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초기에는 소설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에서 ‘일상적 안에서 의미찾기’와 ‘이질적인 것들의 어울림’을 추구했다. 중년에 들어서서는 6·25전쟁, 5·18민주화운동의 체험을 객관화하여 ‘구원의 문제’로까지 심화한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성찰의 깊이가 더해져 노년의 삶과 소통 문제, 자연생태 문제로까지 주제를 확장했다.

이번 선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첫 창작집 ‘고향으로 가는 바람’ (1977)부터 ‘생오지 눈사람’ (2016)까지 각각 초반에 수록된 ‘작가의 말’과 ‘평론가’의 해설을 각 권에 나눠 실었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작품을 내놓았을 당시 작가의 소회와 고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아울러 작가 의식의 변모 양상과 함께 소설의 주제가 확장되는 지점을 포착할 수 있다.

한편 문 작가는 이번 선집 발간에 대해 “내 60년 문학인생이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은 후련함과 한편으로는 손살같이 흘러와버린 시간에 대한 섭섭함도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소설을 쓰면서 인생 만년을 영원한 현역 작가로 살고 싶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心兮本虛(심해본허)’

후산(厚山) 정재석 서예전이 오는 4월1일부터 25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예회관이 지난해 진행한 광주문예회관 전시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열리는 기획이다.

‘서해무변(書海無邊)-가 없는 서 예술의 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다채로운 서체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서예를 칭할 때 고전이라는 표현이 와 닿는다. 서예작품은 작가의 현재를 그대로 드러낸다. 답습을 고전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지 지금의 모습이 습속(習俗)에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작업한다”고 말한다.

(故) 학정 이돈홍 선생의 제자로 20여년간 서예가의 길을 걸은 정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미술대전, 전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예술공간 집에서 기획 초대전을 갖는 등 지금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등에서 3차례 개인전을 개최했다.

북경에서 열린 한국청년서법가 15인전, 문자문명전, 대한민국건국 100주년 기념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도 참여했다.

/김미기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초·중등 신규단원 모집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이 전남도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지난 2005년 창단한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은 예향 남도의 명성을 이어갈 차세대 국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단체다. 모집은 오는 30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창악부, 기악부(가야금·대금), 무용부, 사물부 등 4개다.

실기전형은 동영상 심사로 대체되며, 각 지원 분야의 전형과제를 직접 촬영(5분 이내)한 후 원서 접수 시 영상 파일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달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단원의 모든 활동은 전남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매주 토요일 운영되는 주말교육 및 하계합동연습 참여, 전남도립국악단 토요일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출연의 혜택뿐만 아니라, 최우수 단원에게는 표창 수여의 기회도 주어진다. 문의 061-980-9966. /전은재 기자 ej6621@

역사 왜곡 논란 SBS ‘조선구마사’ 결국 폐지

나주시, 테마파크 사용허가 취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TV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 (사진)가 반중 정서를 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됐다.

역사 왜곡 논란에 드라마가 폐지까지 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SBS는 최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는 “이로 인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경제적 손실과 편성 공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

만,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방송 취소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조선구마사’는 지난 22일 1회 방송 중 충녕대군(장동윤 분)이 서양 구마 사제(달시 파켓)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월병 등 중국식 소품을 사용하고, 무녀 무화(정혜성)를 중국풍 의상을 입혀 논란이 됐고 태종(김우성)과 양녕대군(박성훈), 충녕대군에 대한 묘사도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제작사와 SBS는 사과문을 내며 관련 장면을 모두 수정하고 한 주 결방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품을 완전히 재정비에 방송하겠다고

밝혔지만 광고주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작 지원을 줄줄이 철회하자 제작을 이어가기가 어렵게 됐다.

‘조선구마사’ 측에 촬영장소를 제공했던 나주시는 이에 앞서 23일 나주영상테마파크의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광지 홍보를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방송사의 촬영 협조 요청에 따라 영상테마파크 시설 사용을 허가했으며 장소 외 예산 지원은 전혀 없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드라마, 영화 등 촬영을 위한 협조요청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cu08171@cu.co.kr ☎ 1644-7990

관동지점 관서지점 관남지점 관북지점 관서지점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